

시간이 지나면

독서 활동지



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 조금씩 성장하며 빛나는
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림책



마리나 루이스 글, 그림 | 공경희 옮김 | 16,000원 | 초등 전학년



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《시간이 지나면》의 매력



‘돌과 물’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나요? 큰 바윗돌이 점차 깨져 나중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이 되는 과정이 담긴 노래입니다.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바윗돌이 모래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? 아주아주 오래 기다려야 모래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.

평소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나요, 느리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나요? 많은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느리게 가다가 주말에는 쏜살같이 흘러간다고 할 것 같네요. 가끔은 주말이 더 길거나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차분히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봄이 되면 돌아나는 새순, 비가 내릴 때면 나뭇잎 사이를 영차영차 기어가는 작은 달팽이, 저마다 붉은색, 노란색의 옷을 입고 팔랑거리는 낙엽들, 겨울잠을 준비하려고 도토리를 한가득 모으는 다람쥐 등 평소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근처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. 가만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언젠가 바위가 모래가 되고, 나무는 울창한 숲이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.

그러다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기다리던 엄마와의 시간이 오게 되면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할 겁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이 시간어요. 그때처럼 이 책을 읽으며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하길 바랄게요.

— 전진서(인천 병방초 교사)



나는야 시간 마법사!

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?

시간을

느리게
할 수 있다면

멈출 수 있다면

빠르게
할 수 있다면

하고
싶습니다.



나는야 일상 탐험가!

이 책의 주인공 소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찾습니다.
여러분들의 집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지 산책하면서 찾아봅시다.



궁금해, 궁금해!

소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무엇을 물어보고 싶나요?

예시

과거, 현재, 미래 중 나는 현재가 가장 중요
하다고 생각해! 왜냐하면~

첫 번째 질문



두 번째 질문



세 번째 질문



네 번째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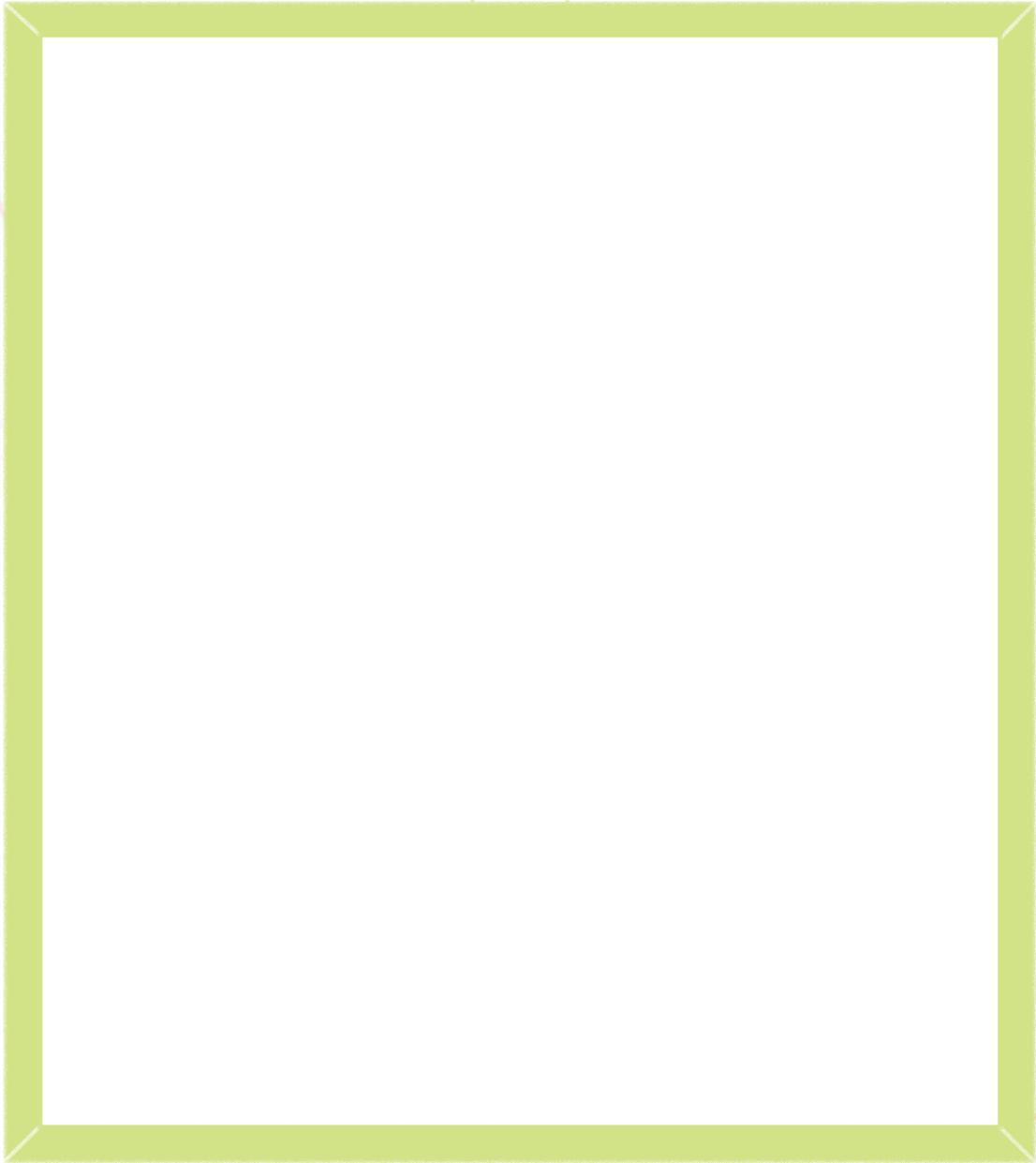




독서 후
활동 4

미래의 나를 그려 봐!

작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큰 나무가 되고, 큰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이 됩니다.
여러분들은 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?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보고, 액자에 그려 봅시다.



나는 미래에 ()

)이 될 것 같아요.

이야기를 상상해 봐!

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.
뒤에 어떤 이야기가 더 있을지 상상해 보고
나만의 뒷이야기를 꾸며 봅시다.

